

## 200자 안내

### 시간관리와 자아실현

유성은 지음

시간의 관리는 곧 삶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시간관리를 인생의 철학·태도·지식·기술 등이 포함된 인생관리로 보고, 이를 철저한 자기 훈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자신의 성숙도와 생활습관 분석, 과학적·합리적 생활의 기초, 목표작성, 시간 예산작성 등 구체적인 원리와 기술을 통해 시간 관리 훈련을 실습하게 했다.

승문 출판사 / A5신 / 206면 / 3000원

### 그리스 로마 신화

토마스 불핀치 지음 / 이상욱 옮김

신화에 대한 지식 없이는 고전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은 신화 속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식이 전달되게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던 세계구조에서부터 출발하여 신들의 家系를 따라 프로메테우스·아폴로·미네르바·드루이 등에 얽힌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삼성 기획 / A5신 / 430면 / 4000원

### 바보같은 천재들

金光日 지음

한양대 신경 정신과 교수인 저자가 그동안 잡지 등에 게재했던 글들을 한데 모아 묶었다. 모든 현대인은 신경증적인 요소를 가질 만큼 복잡하고 각박한 사회에서는 이를 극복한 지혜가 필요하다. 저자는 정신치료상담의 체험 인간형태에 얽힌 미묘한 심리, 사회환경의 병적인 요소 등에 관해 정신과의사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第三企劃 / A5신 / 304면 / 3200원

### 30대의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일

시모유 아끼꼬 지음 / 변태관 옮김

30대 여성을 위한 인생지침서. 30대는 이제까지의 분주했던 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어 끊임없이 다가오는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참다운 가치관과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0대'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로부터 출발해 인간관계, 현명한 가정경영, 자기개발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했다..

신서 출판사 / A5신 / 258면 / 3000원

### 反對의 自由

윌리엄 더글라스 지음 / 안경환 옮김

미국 법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으며 최장기 연방대법원판사였던 윌리엄 더글라스의 법률과 인권사상을 압축한 책. 기존윤리에의 맹목적인 굴종을 거부하는 한편, 반대와 도전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자유가 갖는 의미란 무엇인가를 냉철히 분석했다.

大學出版社 / A5신 / 94면 / 1800원

### 사하라 日記

최종립 지음

한국인 최초로 사하라사막을 횡단했던 저자가 일기체로 엮은 체험기.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사하라를 종단한 후 다시 사막을 횡단해 아프리카 서해안의 다카르에 도착하기까지 22일간 자연과 인간관계에 도전했던 그의 체험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선일 / A5신 / 204면 / 3000원

### 福祉國家의 社會政策

Ake Elmer 지음 / 文石南 옮김

사회정책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오늘날과 같은 모범적인 복지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여러 요소들을 살폈다. 특히 각종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크게 소득보장, 환경개선과 서비스, 의료와 선도, 보호와 규제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법률제도 등을 분석했다.

大旺社 / A5신 / 268면 / 4000원

### 무너져가는 蘇聯帝國

나스 기요시 지음 / 車大善 옮김

소련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소련사회의 갖가지 누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고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이자 외교평론가인 저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소련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소련체제, 즉 공산주의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 책에서 역설했다.

共同出版社 / B6 / 242면 / 3500원

### 中國의 古代服飾研究(I)

任明美 지음

중국의 민속예복의 형성과 복식변천에 끼친 동북아세아 민족복식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 漢 이전의 왕조와 清朝복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세아 민족간에 복식 문화의 상호 교류 관계 실태를 파악, 재인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복식문화 발달사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耕春社 / B5변형 / 188면 / 7000원

### 버선발에 양구두

李圭泰 지음 / 이상욱 옮김

전통과 외래문화의 전환이 있었던 개화기의 문물과 事理를 통해 역사의 단면을 조망한 책. 크게 산업·경제, 복식·음식·주거와 시류·오락 등으로 나눠 우리 문화의 위상을 살피고 있다. 계·객주·신발·연애·창기 등 개화기 조상들의 생활상을 냉철한 문명비판의 안목으로 재조명했다.

新太陽社 / A5신 / 380면 / 3700원

###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조창현 지음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것으로 꼽힌다. 지방 자치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의 하나로 이 책은 지방자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조, 외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 정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東亞日新社 / A5신 / 244면 / 2400원

### 세일즈와 話術

서림능력개발자료실 엮음

현대의 세일즈맨은 단지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상담 각종 정보 전달 등 중요한 책임을 지닌다. 이 책은 3편으로 나누어 세일즈의 종합적 이론과 자료 제시, 세일즈맨에 필요한 거절에 대한 대응화법, 새로운 시대의 세일즈맨의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 등을 다뤘다. 현대의 세일즈활동의 길잡이로서 도움이 된다.

서림문화사 / A5신 / 400면 / 4000원

### 개그 개그맨

임기홍 지음

개그작가로 일하면서 써온 '코미디·개그'의 대본을 정리하여 묶은 책. 코미디언·개그맨 27명의 약력과 함께 엮은 대본과, 최우수 개그대본 100편을 선정하여 실었다. 「명청한 도둑」 「남과 여」 「아! 선생님」 등 날카

로운 지각으로 표현한 재치가 즐거움을 전해준다.

귀인사 / A5신 / 284면 / 3500원

### 解說 西書五經入門

李民樹 편저

儒家의 기본경전인 「사서」와 「오경」은 동양사상의 근본이며 정신적 지주로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다.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방대한 분량의 「사서」와 「오경」의 심오한 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정수만을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한편의 책으로 엮었다.

홍신 문화사 / A5신 / 464면 / 4500원

### 會社文書·書式事典

經營院 엮음

직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문서의 서식과 문장작성방법을 풍부한 실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한 책. 사내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물론 전화·회의메모 등을 비롯한 37종의 문서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놓고 있어 직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經營院 / A5신 / 562면 / 1900원

### 住居團地計劃

Kirschenmann, Muschalek 지음 / 梁東陽 옮김

주택건설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논하는 한편, 도시설계자와 건축가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본주의경제 체계 속의 주택단지 설계요소를 살핀 이론서. 지난 25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설립된 주거단지들을 실례로 들어 집중 소개함으로써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정립을 꾀하고 있다.

泰林文化社 / B5 / 184면 / 10000원

### 알기쉬운 自動車保險

崔炯晟 지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부터 일어나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원상회복을 도모하여 사고이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책은 자동차사고의 문제점을 해설하고, 보험종목, 보험료의 계산방법, 보험료 할인 대상 및 적용방법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EM文庫 / A6변형 / 186면 / 2000원

### 37년 걸린 길

심재호 지음

「상록수」의 저자 심훈의 부인과 세째아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큰아들을 만나기 위해

87, 88년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쓴 '심훈가족 상봉기.'

1부는 교포신문에 연재되기도 했던 1차 방문기, 2부는 능라도 종합경기장 등 북한의 최근 실상을 기록한 2차 방문기, 3부는 해외 언론인으로서 본 조국의 현실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다.

竹山/A5/190면/2500원

##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루이제 린저 지음 / 윤현자 옮김

정치·사회·종교의 문제, 모든 인간을 둘러싼 문제들을 수기형식으로 써서 모은 책. 「옥중일기」「북한기행」 등 특이한 작품을 발표했던 저자의 인간성 구원에 대한 차원 높은 글들이 담겨 있다. '너와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 '왜 소유는 균등해야 하는가' 등 4개의 테마로 묶어, 혁명적인 삶을 위어간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으로 시대를 조망하고 있다.

知文社 / A5신 / 258면 / 3000원

## 서양란 알기쉬운 재배

백영관 편저

꽃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품종을 자랑하는 서양란의 재배기술을 도해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양란가꾸기에 필요한 기초지식은 물론, 대표적인 품종인 덴드로비움·심피디·카틀레야·파피오펜디움의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전원문화사 / A5신 / 96면 / 4000원

## 여행중국어회화

권호연·차경섭 지음

중국어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중국어 발음에서부터 일상적인 생활회화, 현지여행시의 실황회화 등을 중심으로 엮은 입문서. 현대 중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살아있는 중국어가 풍부하게 소개돼 있고,獨習에 편하도록 본문을 구성했다.

진명출판사/A5신/280면/4000원

##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박태하 외 지음

불교수행의 초입에 들어선 在家佛者 43인의 修行수기모음. 불교전문지 월간 「불광」지에 게재됐던 것을 모아 이번에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평범하거나 절망적이거나 또 때로는 타락한 삶을 살던 이들이 어떻게 부처를 만나고 불법에 귀의하고 신심을 돈독히 했는지를 보여준다.

불광/A5신/354면/3500원

##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나이

J.A. 샌포드 지음 / 엄성옥 옮김

돈을 받고 그림자를 팔아버린 한 남자가, 자신의 중심부분 즉 자기존재의 일부분을 상실하고 말았음을 깨닫고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섬뜩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린 장편소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저자는 파우스트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이 작품을 통해, 자기존재로부터 소외돼 죽음에 이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발하고자 했다.

은성/A5신/124면/1800원

## 발전행정

조지F 간트 지음 / 이은재 옮김

발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개설서. 발전행정의 주요 활동영역인 기획(plans) 정책(policies) 계획(programms) 사업(projects)을 설명하고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발전행정의 개념, 조직분야 및 관리체제 내에서의 발전문제, 발전행정의 적용문제 국제관계에 관련된 문제 등등을 폭넓게 다뤘다.

大永文化社/A5신/374면/5800원

## 땅밑을 흐르는 큰 강물

남진우·박덕규 엮음

88년도 신춘문에 당선시인들의 신작시집.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의 시인들이 자신의 작업을 공개하는 첫번째 현장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지금, 한국시의 새로운 발생법을 만날 수 있다. 수록시인은 권대웅(조선일보), 안상학(중앙일보), 김정희(동아일보), 이효숙(서울신문), 성선경(한국일보), 조현석(경향신문) 등 6명이다.

청백/B6신/159면/2000원

### 화제의 책

## 韓國의 風俗畫

金龍煥 지음



만화 「코주부」로 유명한 在日화가 김용환씨가 한국 전통의 생활풍속을 소재로 그린 자신의 작품 100점을 묶어 「韓國의 風俗畫」를 펴냈다.

원래 일본의 한국계 일어판 신문 「統一日

### 화제의 책

## 도깨비

안상수 엮음



「기하무늬」「꽃무늬」 등 일련의 한국전통 문양집을 발간해온 안그라픽스에서 그 세번째 작업으로 「도깨비」편을 펴냈다.

고대 청동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깨비의 형상에서부터 돌에 새겨진 것, 건축물의

### 이색출판

## 서대문형무소

김동현·민경원 사진 / 이영희·나명순 글



암울했던 우리의 현대사를 증언해주는 민족수난의 살아있는 현장 서대문형무소가 경기도 시흥의 포일리로 옮겨가던 날의 기록과 역사를 사진과 글로 엮은 「서대문형무소」가 발행됐다.

報」와 LA의 미주판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것을 함께 모은 이 책은 '그림으로 엮은 한권의 生活史'로서 우리 옛풍속의 분위기와 현장감을 생동감있게 재현해주고 있다. 김용환씨 특유의 활달한 선묘와 깔끔한 색채가 어우러진 가운데 창포탕, 동채싸움, 각설이, 지신뱀기, 비석차기, 고누, 일꾼중참 등 점차 잊혀져가는 고유풍속들이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돼 특히 흥미롭다.

펼친 페이지의 오른쪽엔 그림을, 왼쪽엔 한글 및 영문의 간명하고 요령있는 해설을 실어 외국인들도 우리의 생활풍속을 앞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상권으로 곧 하권을 펴낼 예정이다.

민문고 / B5변형 / 208면 / 1500원

문고리 장식이나 기둥머리, 기와마구리, 벽돌에 새겨진 것, 장수가 입는 갑옷의 어깨 부분이나 복부에 장식된 것, 그리고 민화로 그려진 것 등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도깨비형상을 수집해 현대적 감각으로 변용시킨 도깨비문양 74점을 실었다.

문양이란 한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의식이 양식화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심성 깊은 곳에 담겨 있는 도깨비문양의 갖가지 양태들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됐다.

많은 수의 문양들을 흑백의 배치를 바꿔, 형태는 같지만 색의 대비에 따라 전혀 색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 것도 흥미롭다. 개개문양에 일련번호를 매겨 찾아보기에 쉬운 것도 장점.

안그라픽스 / A4 / 150면 / 25000원

사진작가 김동현, 민경원씨가 형무소의 전경에서부터 출입문과 담벽, 男舍와 女舍, 독방과 지하감방, 病舍, 목욕탕, 취사장, 교수대 등 형무소 곳곳의 모습을 꼼꼼히 카메라에 담았고, 이영희, 나명순씨의 글을 책의 앞뒤에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영희교수의 「서대문형무소의 기억」은 전후 3차례에 걸쳐 이곳에 수감됐던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있으며, 작가 나명순씨의 「서대문형무소 1907~1987년의 小史」는 순종 즉위년에 준공돼 일제시대와 해방 및 6.25를 거쳐 최근에 이르는 형무소 略史를 자료사진과 함께 엮었다.

「한국의 바스티유」로 불리다가 이제는 퇴역한 서대문형무소의 전모를 두루 개관할 수 있는 책.

열화당/B6/142면/3000원

